

번호 III-12

제 목	국 문	정규 수술 취소의 원인 분석과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에 관한 연구			
	영 문	Analysis on Factors for a Cancellation of a Regular Operation and the Study on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an Operation Room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현옥 <sup>1)</sup> , 윤태영 <sup>2)</sup> , 장성구 <sup>3)</sup> 1)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영 문	Kim Hyun-Ok <sup>1)</sup> , Yoon Tai-Young <sup>2)</sup> , Chang Sung-Goo <sup>3)</sup> 1)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Hee University 2) Dept. of Preventive Medicine, 3) Dept. of Ur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			
분 야	보건관리 (○)	발표자	일반회원 (○) 전공의 (○)	발표형식	구 연 ( ) 포스터 (○)
	역학 ( ) 환경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99년 8 월				

1. 연구 목적

효율적인 수술실 운영과 병원경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수술실의 공동화를 막고 수술실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규 수술 취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서울 소재 3차 의료기관인 K대학 부속병원 수술실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한 총 예약 건수, 수술환자 취소 건수와 과별 평균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수술 예약 건수 및 취소율의 경향과 수술취소원인을 분석하고 수술취소에 따른 수술 및 마취비의 손실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1. 수술예약 건수 및 취소율

(1) 조사 기간 중 예약된 총 수술 건수는 10,443 건이었으며, 수술예약 점유율은 정형외과가 2,572 건으로(24.6%)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이비인후과(22.2%), 일반외과(12.7%) 순 이었다.

(2) 조사 기간 중 예약된 수술이 취소된 경우는 총 536건으로 5.1%의 취소율을 보였는데 수술 취소율은 산부인과(8.8%), 흉부외과(6.9%), 안과(6.21%)의 순 이었으며 가장 낮은 수술 취소율을 나타낸 과는 정형외과(2.6%)였다.

(3) 가장높은 취소율을 보인 달은 5월로 예약건수 762건에 취소건수 56건으로 평균 취소율이 7.35%로 전체 평균 취소율(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취소 사유는 '검사 소견의 이상(2.8%)', '환자 입원 안함(2.6%)', '환자 불안 및 수술 거부(2.61%)' 등 이었다.

(4) 취소율이 가장 낮은 달은 4월로 예약건수 910건에 취소건수 11건으로 1.2%이었으며, 취소 점유율 면에서는 7월(11.2%)이 가장 높았으며 1월(10.8%), 5월(10.5%)의 순 이었으며 4월(2.1%)이 가장 낮은 취소 점유율을 나타냈다.

(5)수술 취소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이유가 '검사 소견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30.8%)였고 그 다음이 '환자 입원 안함(30.2%)', '수술 불필요 및 수술연기, 무리한 스케줄, 앞 수술 지연(16.2%)'의 순 이었고 '수술실 설비, 장비 고장 및 미비(0.4%)'가 가장 낮은 이유로 나타났다.

2. 수술 취소에 따른 수술비 및 마취비 손실

(1) 각 과별 수술 취소에 따른 수술료의 손실액은 정형외과가 67건으로 총 115,783,772원, 산부인과 61,213,000원, 신경외과 61,073,717원 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473,987,843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손실 비율로 보면 정형외과 24.4%, 산부인과 12.9%, 신경외과 12.9%의 순 이었다.

(2) 수술 취소에 따라 수반되는 마취비 수입의 손실액은 산부인과 21,183,100원, 정형외과 19,119,522원, 이비인후과 17,708,551원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13,379,578원의 마취비 수입 손실이 발생되었다.

4. 고 찰

(1)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국병원 400병상 미만 1곳, 400-599병상 9곳, 600-799병상 8곳, 800병상 이상이 7곳 등 조사에 참여한 25개 의료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술 예약 점유율이 일반외과가 전체건수의 23%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보건사회부 연구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의 수술 취소율 평균값은 9%로 조사되었고 수술 취소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2%였고 가장 높은 병원은 21%로 조사되어 병원간 수술 취소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국 25개 병원의 각과의 평균 수술 취소율을 보면 성형외과(1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피부과(11%), 비뇨기과, 일반외과, 신경외과가 각각 10%로 나타나 본 조사에서 가장 높은 취소율을 나타낸 산부인과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3) 정규 수술 취소 점유율이 이비인후과(24.81%), 산부인과(18.66%), 정형외과(12.50%)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술 환자를 다루는 과에서 취소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수술환자의 증가로 수술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계획 수술이 늦어져서 취소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병원 전체 수술 건수의 상당 부분을 이들 과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과에서 수술 취소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검사 소견의 이상'이 수술취소의 중요한 이유가 되므로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 예약 수술인 만큼 외래 진료시 사전에 철저한 수술 및 마취를 위한 검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